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진로타협 과정에서 선호도 차이*

정 주 리 이 기 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진로타협 과정의 사회적 명성, 성특성, 흥미 간의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성별에 따른 차이와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는 심리적 변인을 고려하여 타협과정에서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선호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참가자들은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370명(남자 237명, 여자 133명)으로 직업선호도 검사, 성 고정관념, 직업의사결정 타협과정 쌍별 비교표로 구성된 설문지에 응답하였다. 반복측정 결과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세 개의 타협 요인들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사회적 명성, 흥미, 성특성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지만 남학생들은 높은 사회적 명성을 위해 성특성과 흥미를 타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들은 성특성보다는 사회적 명성에 유의미한 선호도를 보였으나 사회적 명성과 흥미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진로타협과정의 선호도 차이도 나타났는데 성역할 고정관념을 덜 가지고 있는 집단일수록 자신의 흥미를 위해 성특성을 타협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성역할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는 자신의 흥미를 위해 성특성을 타협하지 않았다.

주요어 : 진로타협, 성차, 성역할 고정관념, 흥미, 직업적 성특성, 사회적 명성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BK21 사업단의 지원을 받음: 과제번호 2007-8-0028

† 교신저자 : 이기학,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Tel : 02)2123-2445, E-mail: khlee2445@yonsei.ac.kr

사람들이 생애를 통해 자신의 진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진로와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진로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함을 종종 경험하게 된다. 현실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진로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진로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진로와 현실적으로 가능한 진로 사이에 격차를 줄여갈 필요가 있고, 이런 과정을 진로의사결정의 타협과정이라고 한다(Gati, 1993).

Super(1953)는 진로의사결정에서 타협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타협과정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타협과정에 관한 이론들과 경험적 연구들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여 타협하는지에 초점을 두어왔다. 즉, 진로의사결정에서 타협 과정은 개인이 자신에게 보다 중요한 요소들을 유지하기 위해 덜 중요한 요소들을 포기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황매향, 김계현, 2001).

진로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타협의 우선순위에 관한 이론을 최초로 정립한 Gottfredson(1981)은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들로 개인의 직업자아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직업의 성특성, 흥미, 사회적 명성 세 요소를 꼽았고, Gati, Houminer와 Aviran(1998)은 타협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들을 개인적 요소들과 사회적 요소들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중 개인의 성별과 흥미 변인은 개인적 요소로써 타협과정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인일 수 있으며, 소득과 명예와 같이 직업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사회적 명성은 사회적 요소로써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이

기학, 2005).

Gottfredson에 따르면 개인의 직업자아개념은 네 개의 단계를 통해 발달하는데 개인은 각 발달단계마다 특정 요인에 의해 선택 가능한 직업의 수를 줄여나가며 최종적으로 하나의 직업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직업자아개념 발달의 첫 단계(3-5세)는 크기와 힘을 지향하는 단계로 아동은 어른들에게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직업을 통해 이러한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단계(6-8세)는 성역할을 지향하는 단계로 이 시기에 성역할 개념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성역할에 적합한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을 구분하여 자신의 성역할에 일치하지 않는 직업들은 대안에서 제외시킨다. 세 번째 단계(9-13세)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단계로 사회적 계층과 지위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면서 수용하기 어려운 낮은 지위이거나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의 최대치를 넘어서는 노력을 요구하는 직업은 대안에서 제외시킨다. 마지막 단계는 내적이고 고유한 자아를 지향하는 단계(14세 이상)로 개인은 자신의 고유한 자아를 발달시키며, 자신의 능력과 흥미에 기초해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

Gottfredson은 자아개념의 어떤 요인은 다른 요인보다 더 중요해서 타협 시 이 요인은 우선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Gottfredson에 따르면 자아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성역할이기 때문에 타협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권을 갖는 요인은 직업의 성특성이고, 그 다음은 직업의 사회적 명성이며, 마지막으로 개인의 흥미라고 하였다. 즉, 자신이 기대하는 사회적 명성의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의 흥미영역에 있는 직업을 포기할 수 있으며, 자신의 흥미영역에 있거나 직업의 사회적 명성이 적절할 때에도 자신의 성역할과 맞지 않으면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Gottfredson(1981)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Gottfredson이 제안한 타협의 우선순위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타협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김미연, 방희정, 2005; 이기학, 2005; 이기학, 조미랑, 2003; Blanchard & Lichtenberg, 2003; Hesketh, Durant, & Pryor, 1990; Hesketh, Elmslie, & Kaldor, 1990; Holt, 1989; Leung, 1993; Leung & Plake, 1990; Talyor & Pryor, 1985).

먼저, Gottfredson(1981)의 타협의 원리를 지지한 연구 결과를 보면 Taylor와 Pryor(1985)의 연구에서 사회적 명성은 흥미와 교육과정의 관계에서 중재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참가자들은 동일한 흥미영역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사회적 명성 수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자신의 흥미와 일치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중립적인 성특성이나, 전통적으로 자신의 성에 일치한다고 알려진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특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Holt(1989)의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공학과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특성은 제외하고 흥미와 직업의 사회적 명성에서 타협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참가자들은 자신의 흥미 영역과 상관없이 사회적 명성이 높은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참가자들의 전공에 따른 차이도 보고되었는데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보다 직업의 사회적 명성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Gottfredson(1981)이 제안한 타협의 우선순위에 상반된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Hesketh, Durant와 Pryor(1990)의 연구에서는 직

업의 사회적 명성 수준은 흥미영역보다 중요하지 않았고, 타협이 필요한 상황에서 흥미영역의 중요성은 더 증가하였으며, 직업의 성특성의 중요성은 감소하였다. Hesketh, Elmslie와 Kaldor(1990)의 연구에서도 흥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성특성은 가장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 Leung과 Plake(1990)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은 성특성이 아닌 직업의 사회적 명성을 더 중요시 했으며 사회적 명성을 위해 성특성을 희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시아계 미국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Leung(1993)의 연구에서도 참가자들은 성특성을 사회적 명성보다 더 쉽게 타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Gottfredson(1996)은 타협상황의 심각도에 따라 타협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기존의 이론을 수정하였다. 이를 확인하고자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타협의 심각도에 따른 타협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살펴본 Blanchard와 Lichtenberg(2003)의 연구에서 Gottfredson의 수정된 이론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참가자들은 타협의 심각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흥미를 가장 중요시 하고, 다음으로 사회적 명성, 마지막으로 성특성을 중요시하였다. 중간정도 수준의 타협 상황에서는 사회적 명성과 성특성을 중요시하고, 마지막으로 흥미를 고려하였다. 타협정도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명성과 성특성을 중요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흥미를 중요하게 여겼다.

타협과정의 선호도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결과와 함께 여러 연구들에서 동시에 보고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는 바로 진로타협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선호도 차이이다. Taylor와 Pryor(1985)의 연구에서는 여성들은 사회적 명성보다는 흥미와 일치하는 교육과정을 선택하

는 경향이 있고, 독립적인 성특성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직업의 사회적 명성에 더 민감하였으며 사회적 명성을 위해 흥미를 희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남성적 직업이라고 여겨지는 교육과정을 선택함으로써 대안으로써 고려하고 있는 직업의 성특성 범위가 더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Leung과 Plake(1990)의 연구에서도 타협과정에서의 남녀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성특성에 덜 민감하며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명성이 높은 경우 직업적 대안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ung(1993)의 연구에서도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사회적 명성을 위해 성특성을 타협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Blanchard와 Lichtenberg(2003)의 연구에서는 낮은 심각도의 타협상황에서 여성들은 사회적 명성과 성특성보다는 흥미를 중요시 했으나 남성들은 세 요소 간 차이가 없었고, 타협의 심각도가 심한 상황에서 여성들은 사회적 명성과 성특성을 흥미보다 중요시 했으나 남성들은 성특성을 가장 중요시 하고, 다음으로 사회적 명성, 마지막으로 흥미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국내에서도 이기학과 조미량(2003)이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을 살펴본 결과, 타협과정에서 선호도에 있어 남녀 간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남학생들은 사회적 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다음으로 흥미, 마지막으로 성특성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고, 여학생들은 흥미를 가장 중요시하고, 성특성, 사회적 명성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인문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타협과정을 살펴본 김미

연과 방희정(2005)의 연구에서도 타협과정에서 중요시하는 요인에 있어 성차가 발견되었다. 남학생들은 진로갈등 상황에서 사회적 명성을 가장 중요시 하고, 흥미, 성특성 순으로 직업의 선호도를 보였으나 여학생들은 성특성을 가장 중요시 하고, 다음으로 흥미, 마지막으로 사회적 명성을 중요시하였다. 이기학(2005)의 연구에서도 인문계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사회적 명성을 직업의 성특성이나 흥미보다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나, 여학생들은 흥미를 가장 중요시하고, 사회적 명성, 성특성 순으로 선호도를 보였다. 이들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성과 남성의 진로타협과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별로 구분해서 진로타협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타협과정에서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면서 개인의 심리적 변인 중 하나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타협과정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황매향과 김계현(2001)은 진로의사결정의 타협과정은 단선적이기보다는 개인의 특성과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선호도에서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이란 남성이나 여성을 평가할 때 그의 개인적 특징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생물학적 성에만 의거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남성적 특성 혹은 여성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개념(김동일, 1991)으로 직업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 중 하나이다. 성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에 아동들은 성역할 고정관념 역시 습득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사회적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체계로 사용하게 된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개인의 내적태도 및 행동 뿐 아니라, 장래에 갖게 될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Beuf, 1974). Gottfredson(1981) 역시 자신의 성과 일치되는 직업을 선호하는 성역할 지향은 이른 시기에 형성되는 자기개념으로 나중에 발달하게 되는 사회적 명성이나 흥미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역할에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을 것이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고려하고 선택하게 될 것이다(탁진국, 1995).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의사결정의 타협과정에서 선호도를 살펴본 연구가 부족했음을 고려하여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국내의 기존 연구들과 달리 대학생 집단에서 진로타협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 후기와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아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 주요한 발달과업이 되며(Erikson, 1968) 또한 실질적으로 구직활동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직업 사이에서 타협을 해야 하는 대학생 시기와 실제 직업을 결정할 때까지 대학생활이라는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등학생의 타협과정에서의 선호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가까운 미래에 실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한국 대학생들이 진로의사 결정을 할 때 여러 직업 대안들 사이에서 사회적 명성, 성특성, 흥미 중 어떤 요소

를 우선시하여 타협을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며, 타협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선호도 차이와 함께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에 따른 선호도 차이가 존재하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상적이고 진로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시기와 달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대학생 시기에는 직업자아개념 중의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는지 파악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 집단에서도 성별이나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두 변인이 상호작용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진로타협 과정의 연구들이 타협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차를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소재 두 개의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 370명이다. 참가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 237명(64.1%), 여학생 133명(35.9%)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159명(43%), 2학년 103명(27.8%), 3학년 55명(14.9%), 4학년 53명(14.3%)이었다. 이들의 연령 분포는 18-41세로 평균연령은 21.99세($SD = 2.58$)이다. 참가자들의 전공은 문과대학 소속 전공 49명, 상경 및 경영대학 소속 전공 43명, 이과대학 소속 전공 32명, 공과대학 소속 186명, 사회과학 소속 23명, 기타 32명, 무응답 5명이었다.

측정도구

흥미유형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흥미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노동연구원에서 고려대학교 행동과학 연구소(2001)에 의뢰해 제작한 직업선호도검사의 S형을 사용하였다. 직업선호도 검사는 활동영역, 유능성영역, 직업영역, 선호분야영역, 일반성향영역의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Holland(1973)의 흥미이론에 기초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각 하위척도마다 현실형(Realistic, R), 탐구형(Investigative, I), 예술형(Artistic, A), 사회형(Social, S), 진취형(Enterprising, E), 관습형(Conventional, C) 6가지의 성격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하위척도들 가운데 직업흥미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활동영역 42문항만을 사용하였으며 각 성격유형은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를 보면 현실형은 “기계를 가지고 일한다,” 탐구형은 “현미경을 이용하여 연구한다,” 예술형은 “그림을 그린다,” 사회형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을 화해하도록 돕는다,” 진취형은 “리더십 세미나에 참석한다,” 관습형은 “회계 장부를 정리한다”와 같다. 해당유형의 점수가 높을수록 그 유형에 대한 흥미가 높음을 의미하며 직업흥미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666 - .874의 범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성격유형의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의 성격유형을 그 사람의 흥미유형으로 규정하였다.

성역할 고정관념 측정도구

성역할 고정관념 검사는 김동일(1991)이 개발한 성 고정관념 검사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3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적, 사회적, 직업 및 외형적, 사회심리

적, 지적 성역할 고정관념의 5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들의 문항 예를 보면 가정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가족의 생계 문제는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 사회적 고정관념은 “여자도 능력이 있으면 가정 외의 사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역산),” 직업 및 외형적 고정관념은 “식당 같은 요식업에서는 여자가 서비스직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 사회심리적 고정관념은 “여자는 남자에 비해 모험심이 부족하다,” 지적 고정관념은 “남자는 여자보다 창의성이 높다” 등과 같다. 이들 문항들은 ‘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의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요인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으로 사용하였으며 하위요인들의 내적 신뢰도 계수는 .762 - .838의 범위를 보였고,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a = .921$ 이었다. 성역할 고정관념의 경우, 총점의 평균점수($M = 85.45$, $SD = 18.172$)를 이용하여 평균점수보다 점수가 높은 집단을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 평균점수보다 점수가 낮은 집단을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본래 이 척도는 5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요인 점수들의 상관범위는 .41-.56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각 요인별로 나누어 반복측정을 했을 때, 직업 및 외형적 고정관념 하위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의 평균점수를 이용한 반복측정 결과와 성역할 고정관념의 총점을 이용한 반복측정 결과가 유사하였기 때문에 총점의 평균점수를 이용하여 집단을 구분하였다.

직업선택 타협 측정도구

진로의사결정 타협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선

호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기학과 조미량(2003)이 개발한 진로의사결정 타협과정의 쌍별비교표를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총 168개의 직업쌍으로 6개의 흥미유형에 대해 흥미일치여부(일치/불일치)*직업의 성특성 일치여부(남성직업/여성직업)*사회적 명성(고/저)의 8개의 요인에 대해 쌍별비교를 하여 직업쌍 중 하나를 강제 선택하도록 하였다. 직업쌍을 비교하여 선택한 직업이 개인의 흥미 유형과 일치하면 1점, 개인의 성별과 일치하면 1점, 사회적 명성이 높으면 1점을 부여하고, 반대되는 경우에는 각각 0점을 부여한 후에 이 점수들의 평균을 계산하여 이용하였다.

쌍별비교표의 제작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Holland(1978)의 이론에 기초하여 6개의 흥미영역별로 안창규(1997), 김정택, 김명준과 심혜숙(2000)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분류한 직업들을 각 영역별로 50개를 선정하였다. 그 후 직업의 성특성 분류를 위해 중앙고용관리소(1998), 노동부(1999), 통계청(2001)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2002)의 여성 유망직업정보와 직업분류 기준을 토대로 각 직업의 여성 인력비율이 60%이상이면 여성적 직업으로, 30%미만인 직업이면 남성적 직업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명성에 따른 직업 분류를 위해 통계청(2001)과 한국산업인력공단(2002)의 자료를 토대로 각 직업의 교육수준과 임금 수

준을 토대로 대졸이상의 학력을 필요로 하고 월평균 임금이 196.9만원 이상이면 사회적 명성이 상인 직업으로, 중졸이하의 학력으로 월평균 임금이 140.6만원 이하이면 사회적 명성이 하인 직업으로 분류하여 총 168개의 직업쌍을 선정하였다(이기학, 조미량, 2003).

자료분석

모든 자료 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래 총 589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나 두 개 이상의 흥미 유형 점수가 동일해서 하나의 흥미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210개의 설문지와 불성실한 응답을 한 19명의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총 370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별, 성역할 고정관념을 집단 간 변인으로 하고 직업의 성특성, 사회적 명성, 흥미를 집단 내 변인으로 하여 세 요인에서 어떤 선호도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삼원혼합설계(three way mixed design)를 하였다.

결 과

본 연구의 참가자들의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진로타협과정의 사회적 명성, 성

표 1. 성별, 성역할 고정관념 고/저하 집단에서 세 가지 진로타협 요인의 평균(표준편차)

	전체 (N = 370)	성별		성역할 고정관념	
		남학생 (N = 237)	여학생 (N = 133)	성역할 고정관념 고집단 (N = 192)	성역할 고정관념 저집단 (N = 178)
사회적 명성	.66(.11)	.66(.11)	.64(.12)	.66(.11)	.65(.12)
성특성	.56(.12)	.55(.12)	.58(.11)	.56(.12)	.55(.12)
흥미	.58(.21)	.57(.21)	.62(.22)	.55(.21)	.62(.20)

특성, 흥미에 대한 선호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타협과정의 세 요인들 사이에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성별에 따라 성역할 고정관념의 고저집단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남학생 총 237명 중 169명(71.3%)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68명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여학생들은 총 133명 중 23명(17.3%)만이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110명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카이제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녀 간에 성역할 고정관념 고저집단의 속하는 비율은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chi^2(1, N = 370) = 99.57, p < .01$.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진로타협 과정에서 선호도 차이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 고저집단에 따른 진로타협 과정의 선호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반복측정한 결과, 진로타협 요인들의 주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2,365) = 28.526, p < .01$), 성별과 진로타협 요인간의 상호작용 효과($F(2,365) = 6.948, p < .01$)와,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타협 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F(2,365) = 4.392, p < .05$)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별, 성역할 고정관념, 진로타협 요인 간의 삼원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진로타협 과정에서 선호도 차이

성별과 진로타협 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면(그림 1), 남학생($M = .66$), 여학생($M = .64$) 모두 사회적 명성을 가장 선호하며, 다음으로 흥미(남: $M = .57$, 여: $M = .62$), 마지막으로 성특성(남: $M = .55$, 여: $M = .58$)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성별에서 사회적 명성, 성특성, 흥미 가운데 어떤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비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사회적 명성을 성특성($F(1,236) = 144.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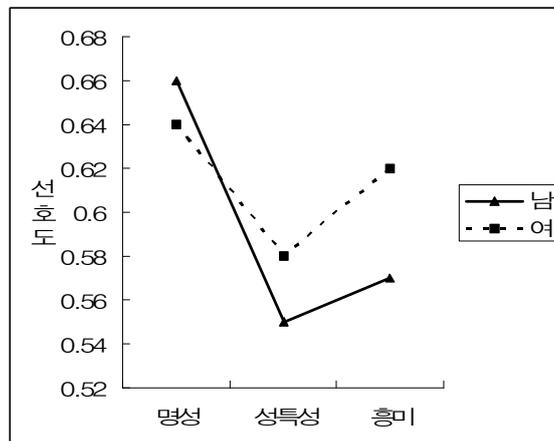


그림 1. 성별에 따른 진로타협과정

$p < .01$ 과 흥미($F(1,236) = 37.493, p < .01$)보다 유의미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흥미와 성특성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여학생들은 사회적 명성을 성특성보다 유의미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1,132) = 15.839, p < .01$), 사회적 명성과 흥미, 성특성과 흥미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진로타협 과정에서 선호도 차이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진로타협과정에서 선호도의 차이를 살펴보면(그림 2), 성역할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M = .66$)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적게 가지고 있는 집단($M = .65$) 모두 사회적 명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역할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은 사회적 명성 다음으로 성특성($M = .56$)을 선호하고, 마지막으로 흥미($M = .55$)를 선호하지만, 성역할 고정관념을 적게 가지고 있는 집단은 사회적 명성, 흥미

($M = .62$), 성특성($M = .56$)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각각에서 진로의사 결정 타협과정의 세 요인 간 대비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은 사회적 명성을 성특성($F(1,191) = 84.369, p < .01$)과 흥미($F(1,191) = 40.333, p < .01$)보다 유의미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특성과 흥미 간의 선호도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집단에서는 사회적 명성에 대한 선호는 성특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F(1,177) = 51.833, p < .01$). 하지만 흥미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대신 이들은 흥미를 성특성보다 유의미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177) = 14.696, p < .01$).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동안 진로 타협 과정에 관한 연구들에서 보고된 성별에 따른 사회적 명성, 성특성, 흥미의 선호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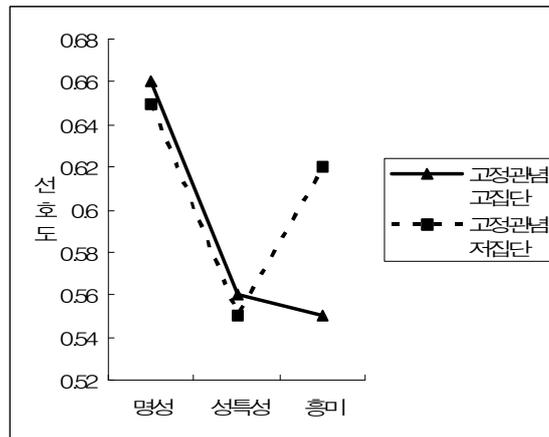


그림 2.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진로타협과정

차이를 살펴보면, 동시에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변인도 함께 고려해 타협과정에서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세 개의 타협 요인들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도의 순서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학생들은 성특성과 흥미보다는 사회적 명성을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들은 성특성보다는 사회적 명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나, 남학생들과는 달리 사회적 명성과 흥미 사이에서 선호도 차이가 없었다.

남학생들이 사회적 명성을 가장 중요시하며 사회적 명성을 위해 흥미나 성특성을 희생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Taylor & Prylor, 1985; 김미연, 방희정, 2005; 이기학, 2005; 이기학, 조미랑, 2003)와도 일치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여학생들은 여성들이 사회적 명성을 위해 성특성을 타협하는 경향을 보인 Leung과 Plake(1990)의 연구와 Leung(1993)의 연구 결과와는 비슷하나, 국내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경우 사회적 명성보다는 흥미(이기학, 2005; 이기학, 조미랑, 2003)나 성특성(김미연, 방희정, 2005)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들은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선호도 순위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참가자들이 가까운 미래에 실제 구직활동을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성특성보다는 사회적 명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을 수 있다. 막연하게 직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청소년 시기를 지나 현실적으로 정말 직업을 결정해야 하는 대학생 시기가 되면 직업은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써만이 아니라 생업의 수단으로써 더 많이 고려하게 될 것이다(정영희, 2002). 따라서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타협과정에서 사회적 명성을 포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실제 생업의 수단으로써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여대생들의 진로타협과정은 고등학교 시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더불어 흥미와 사회적 명성 간의 타협 관계에서 남학생들은 사회적 명성을 위해 흥미를 희생하지만, 여학생들은 사회적 명성과 흥미 간에 유의미한 선호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남학생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 자신의 흥미나 능력보다는 객관적인 보상을 중요시하는 외적 가치를 더 중요시 하고, 여학생들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내적 가치를 더 중요시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이기학, 1997)를 통해 이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학생들은 장래에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여학생들보다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진로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 주면서, 동시에 사회적 체면도 세울 수 있는 높은 사회적 명성의 직업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이기학, 2005).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진로타협과정에서 차이도 나타났는데 앞서 예상한 것처럼 성역할 고정관념을 덜 가지고 있는 집단일수록 자신의 흥미를 위해 성특성을 타협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성역할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는 자신의 흥미를 위해 성특성을 타협하지 않았다. Gottfredson(1981)은 진로타협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아개념 중 성역할이 가장 초기에 형성되고 자아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라고 하였으나, 다른 연구들에 따르면 성역할 고정관념에서는 성차가 존재하면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Shepard & Hess,

1975). 본 연구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고저집단의 분포에 있어서도 뚜렷한 성차가 나타나는데 남학생들의 경우 여학생들보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남성적인 역할로 인정되는 성역할이 사회적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이성현, 1994).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직업이 갖는 중요성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취업이 더 힘들기 때문에 여성들이 고려하는 직업 대안들의 영역을 넓히고 사회적 명성이 높은 직업에 진출하기 위해 성역할의 경계를 넘어서려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쓰인 진로타협 측정도구와 관련된 것으로 우선, 흥미유형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2개 이상의 흥미유형의 점수에서 동점을 보인 많은 사람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진로타협 측정도구에서 설정한 타협의 조건들이 참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각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조건과 실제 객관적인 지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각하고 있는 타협조건들을 객관적 지표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다른 집단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결과와의 차이를 보더라도 이 결과를 모든 집단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

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특히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백인 미국인들보다 직업의 외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며(Leong, 1991), 직업의 사회적 명성에 더 민감하고(Leung, Ivey, & Suzuki, 1994), 한국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미국 대학생들의 성역할 고정관념보다 더 강하다는 기존 연구결과(탁진국, 1995)를 고려했을 때 후속연구에서는 타협과정에서 문화에 따른 차이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상정하지 않은 타협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개인차 변인들 역시 이후의 연구에서 다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성별, 성역할 고정관념, 진로타협 세요인 사이의 삼원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후의 연구들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성별과 함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변인들을 포함함으로써 성차가 어떻게 조절될 것인지에도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기존 연구에서 성별과 문화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알려진 직업가치나 진로에 대한 가족들의 기대와 같은 변인들을 함께 고려해보면 좋을 것이다. 더불어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타협과정의 차이가 진로효능감이나 진로만족도 등과 같이 진로과정에서 개인의 적응을 나타낼 수 있는 변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살펴보아 진로의사결정 과정에서 타협과정의 차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일 (1991). *성의 사회학*. 서울: 문음사
김미연, 방희정 (2005). 진로타협과정에서의 성

- 별과 출생순위에 따른 선호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 173-188.
- 김정택, 김명준, 심혜숙 (2000). 진로탐색검사 활용가이드. 서울: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노동부 (1999). 여성유망직종 70선. 노동부.
- 안창규 (1997). 진로 및 적성탐구를 위한 코드 분류. 서울: 한국가이던스.
- 이기학 (1997).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 심리적 변인들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학 (2005). 진로선택타협과정에서 보이는 선호도에 대한 생물학적 성과 성역할 특성의 상호작용효과연구. 상담학연구, 6, 849-859.
- 이기학, 조미랑 (2003). 인문계 고등학생의 진로 의사결정 타협과정에서 보이는 남녀간 선호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8, 1-13.
- 이성현 (1994). 초등학교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희 (2002). 흥미 유형 및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진로 의사결정 타협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중앙고용관리소 (1998). 여성취업가이드.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 탁진국 (1995). 한국 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성별, 성역할유형 및 문화에 따른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8, 161-174.
- 통계청 (2001).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002). 우리나라 직업지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 행동과학연구소 (2001). 직업선호도검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황매향, 김계현 (2001). 진로 의사결정에서의 타협과정에 관한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 111-124.
- Beuf, A. (1974). Doctor, lawyer, household drudge. *Journal of Communications*, 24, 142-145.
- Blanchard, C. A., & Lichtenberg, J. W. (2003). Compromise in career decision making: A test of Gottfredson's theory.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2, 250-271.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Gati, I. (1993). Career compromis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416-424.
- Gati, I., Houminer, D., & Aviram, T. (1998). Career compromises: Framings and their implic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505-514.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Monograph*, 28, 545-579.
- Gottfredson, L. S. (1996).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pp. 179-23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 Hesketh, B., Durant, C., & Pryor, R. (1990). Career compromise: A test of Gottfredson's (1981) theory using a policy-capturing procedur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6, 97-108.
- Hesketh, B., Elmslie, S., & Kaldor, W. (1990). Career compromise: An alternative account to Gottfredson's theory. *Journal of Counseling*

- Psychology*, 37, 49-56.
- Holland, J. L. (1973).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career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Holt, P. A. (1989). Differential effect of status and interest in the process of compromi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42-47.
- Leong, F. T. L. (1991). Career development attributes and occupational values of Asian American and White American college student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9, 221-232.
- Leung, S. A. (1993).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replication study with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188-193.
- Leung, S. A., Ivey, D., & Suzuki, L. (1994). Factors affecting the career aspirations of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 404-410.
- Leung, S. A., & Plake, B. S. (1990). A choice dilemma approach for examin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x type and prestige preferences in the process of career choice compromis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399-406.
- Shepard, W. O., & Hess, D. T. (1975). Attitudes in four age groups toward sex role division in adult occupations and activit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 27-39.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Taylor, N. B., & Pryor, R. G. L. (1985). Exploring the process of compromise in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7, 171-190.
- 1 차원고접수 : 2007. 5. 10.
심사통과접수 : 2007. 6. 26.
최종원고접수 : 2007. 6. 28.

The Differences of Preference in the Career Compromise Processes Depending on Gender and Sex-role Stereotype

JURI JOENG

KIHAK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areer compromise processes of university students by comparing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x type, social prestige, and interests based on Gottfredson's (1981) theory. A total of 370 undergraduates (237 males and 131 females) at two large universities in Seoul, South Korea participated in return for extra credit in their introductory psychology classes. The results of repeated measures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the relative importance among three Gottfredson compromise aspects. Even though both men and women placed the greatest importance on social prestige, men seemed to sacrifice interests for higher social prestige, but women did not. In addition, there were significant effects of sex-role stereotype on the career compromise processes. Interests were preferred to sex type for students with lower levels of sex-role stereotype, but not for students with higher levels of sex-role stereotype.

Key words : career compromise, gender differences, sex-role stereotype, interest, sex type, social prestige